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5년 6월

선교편지 제 78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곳 선교지에 부임한지 벌써 7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희들이 이곳 선교 기관내의 고참(?) 선교사가 되어서, 새롭게 부임하는 선교사들로부터 이곳에 정착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언을 요청받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곳 선교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품을 이야기 할 때 '부끄러움'이 많다는 것을 빠지지 않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이곳 사람들의 부끄러움은 단순히 '수줍음'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수치심'과 '체면'과 같은 결코 가볍지 않은 감정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이곳 언어로 '히야 (Hiya)'라고 하는데,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잘 헤아려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목적지를 찾지 못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진지하고도 자세하게 길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막상 가르쳐준 길로 가보면, 전혀 엉뚱한 곳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을 안내해 주는 자신도 사실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모르면서, '히야' 때문에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 '틀리다는 것', 그리고 '없다는 것'을 남들이 알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너 모르지!' 또는 '넌 틀렸어!'라고 밝힐 경우에는 사태가 아주 심각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섬세한 '히야'가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순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 마치 활극을 보는 것 처럼 같은 동네에서 집안끼리 총질까지 한다는 뉴스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선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우월적인 위치를 통해서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바로 잡아주고, 베풀어 준다는 일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점점 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엄중한 사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미처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의 '히야'를 다치게 하면 비록 얼굴에 미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마음의 문은 영영 닫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 가는데, 안타깝게도 '선교'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겔 36:26)**

'디고스 예일 교회'가 위치한 '띠구만' 지역은 디고스 내의 '마띠' 지역과 '익핏' 지역을 연결하는 곳에 있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는 주 도로는 아직 포장되어 있지 않지만, 디고스 중심에서 마띠와 익핏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 앞을 통과 해야만 합니다. 띠구만 지역의 대부분은 바나나를 재배하는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나나 농장은 소위 큰 손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업형 농장들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바나나 농장에서 품삯으로 일을 하며,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농지의 짜투리 땅에 마을을 형성하여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땅을 소유하여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이고, 손바닥만한 땅을 한달에 약 \$15 정도에 임대하여 허름한 집을 임시로 짓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주일 아침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어린 아이들과 함께 교회로 나오는 주민들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절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즈음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모두 함께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은 이후에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소위 '심방'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쌀과 구제 물품을 들고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일입니다.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고,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을 이곳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다양한 질병 앞에 속수 무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구를 가르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뿐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위로가 이 척박한 선교지에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제 기대와 달리 '얼마나 큰 일을 영향력 있게 효과적으로 많이 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얼마나 작은 일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를 도리어 묻고 계심을 뒤늦게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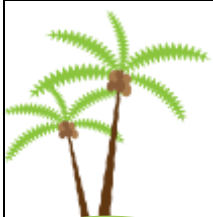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마 25:45)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현지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3. 대학으로 진학하는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익핏 고등학교와 스파마스트 대학의 학원 사역을 위하여
5. 주중 어린이 사역을 위하여 (Day Care Center)
6. 단기 선교 준비를 위하여
7. 위클리프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하여
8.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후원을 위하여
9. 자녀들의 가정과 직장 and 학업을 위하여
10.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